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辛 珠 柏*

1. 머 리 말
2. 1945년의 戰況과 大本營의 ‘本土決戰’, 그리고 한반도 남서해안
3. 부산요새와 부산요새사령부
4. 가덕도 외양포의 포병진지
5. 여수요새와 여수요새사령부
6. 결 론 : 기념과 기억을 위해

1. 머 리 말

1945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해였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우리가 광복을 한 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 점만을 강조하면 기쁨을 표현하는 정도가 반감될 수도 있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와중에 한반도가 처했던 상황에 특별히

관심을 둔다면 8·15광복이 갖는 의미를 더욱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조금만 더 오래 끝었다면 한반도의 어느 한 곳은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는 전투현장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추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한국인이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 ‘본토결전’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가 지금도 제주도에 남아 있는 수많은 일본군 시설지이다.¹⁾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제주도로 징병당한 조선인, 현지에 살았던 제주도민은 총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렸을 것이다. 194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벌어진 오키나와전투는 그것이 단순히 상상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명확히 시사해 준다.²⁾

그런데 한반도의 제주도에서만 본토결전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다. 일본의 대본영과 한반도 주둔 제17방면군은 미군의 상륙을 예상한 지점으로 제주도와 더불어 남서해안 일대, 특히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그리고 군산항 일대를 상정하였다. 그래서 대본영과 조선총독부는 1945년 들어 서남해안 일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매우 서둘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산항과 여수항은 대륙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연결점이었다. 그중에서도 부산항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일본에서 한반도, 대륙으로 이어지는 출발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³⁾ 그래서 이곳에는 항

1) 제주에 남아 있는 군사시설지에 관해서는 (사)제주도동굴연구소, 『南濟州郡西部地域 日本軍陣地洞窟・戰爭遺蹟 調査報告書』, 200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지음, 조성운 책임편집,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 보고서, 2008 참조.

2) 전투의 개황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조선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주백, 『한국근현대사와 오키나와-상흔과 기억의 연속과 단절』,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007, ‘제1장’ 참조.

3) 일본으로서의 목포항과 군산항도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고 대륙을 경영하는 데 있어 중요하였다. 다만, 군사적 방어전략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본영과 제17방면군은 두 항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목포항의 경우 제주도에서의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물자와 인력을 수송하는데 있어 중요한 항구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대본영이 두 항구에 요새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은 점만 보아도 부산항과 여수항에 비해 비중이 취약했음을 알 수 있

*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구를 지키는 요새사령부가 있었다.

이 글은 본토결전 준비에서 부산과 여수가 왜 중요하였고,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대본영과 제17방면군에서 어떤 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그 구도 속에 설치된 군사시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2007년 6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 방문하였고, 부산항과 여수항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네 차례 실시하였다.⁴⁾

이 글에서 부산항과 여수항 일대의 방어구도와 현존하는 시설지에 대해서는 제3, 5장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덕도 외양포의 포병진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애초 이 시설지는 부산항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러일전쟁 당시 진해 해군기지를 지키기 위해 건설되었다. 그래서 비록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당시 부산요새사령부의 관할지였지만, 별도의 '장'에서 검토하였다.

다. 그리고 필자가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남아 있는 '시설지 현황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보았지만 두 항구의 방어구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군사시설지의 현황조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항구에 관해서도 언급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논의 전개와 일관성과 일본군의 방어전략을 파악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두 항구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제로 미루겠다. 다만, 목포항 일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여러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대로 『일제시기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전남 서남해안 일대 군인동원을 중심으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필자도 증언자료에 관한 인용하였다.

4) 방위연구소의 문헌자료 조사는 필자가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이때 찾은 문헌자료 가운데 복사가 가능한 것은 모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네 차례의 현장 조사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지원으로 가능했으며, 위원회의 표영수 박사, 정용문 조사관과 함께 진행하였다. 김윤미 조사관은 제1차 조사 때 함께 하였다.

제1차: 2007. 5.14~15 부산 용호동 일대 포대 진지 제1차 조사(전체 외관 조사)

제2차: 2007. 6.11~12 김해 가덕도 외양포 포대 진지 조사

제3차: 2007. 8.16~17 부산 용호동 일대 포대 진지 제2차 조사(한국군 이용 시설지 내부 조사)

제4차: 2007. 9.10~11 여수 水上機 기지 및 돌산도 포대 조사

2. 1945년의 戰況과 大本營의 '本土決戰', 그리고 한반도 남서해안

(1) 전황과 대본영의 본토결전 결정

1944년 6월 마리아나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었다. 1944년 후반부터 개시되어 1945년 3월 10일 동경대공습으로 대표되는 도시공습도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미군이 전략적으로 획득해야 할 곳은 필리핀이었다. 1944년 10월 미군은 필리핀에 상륙하였고, 일본군은 捷号作戰으로 여기에 대응했지만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본군으로서는 이제 본토가 최전선일 수밖에 없었다.

오키나와는 그 첫 번째이자 유일한 본토의 戰場이었다. 1945년 3월 26일부터 제32방면군 사령관이 자살하는 6월 23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지속된 미군과의 싸움을 오키나와 전투라고 한다. 주지하듯이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군의 북상을 최대한 저지하여 큐슈와 도쿄 등지로 상륙할 미군의 전력에 최대한 타격을 주면서 본토에서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반도에서의 본토결전을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로 시간벌기용이었고, 일본 본토 공격을 용이하게 하고자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대본영은 전황의 변화에 직면하여 1945년 1월 20일 「帝國陸海軍作戰計劃大綱」을 제정하고, 오키나와를 제외한 本土, 곧 제국본토를 중심으로 한 國防要域을 확보하여 본토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군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본토전장화, 곧 '本土決戰'에 적극 대비하기 시작하였

다.⁵⁾ 본토결전의 기본방향은 일본과 조선에 대규모 병력을 서둘러 증강하고, 새로운 시설지를 신속하면서도 대규모로 건설하여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거나 이것이 실패했을 때 결사 항전할 수 있도록 전투태세를 준비하며, 이에 필요한 사람과 시설물을 지휘할 새로운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1945년 들어 제주도와 한반도의 남서해안 일대에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었다. 본토결전이란 용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말인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의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규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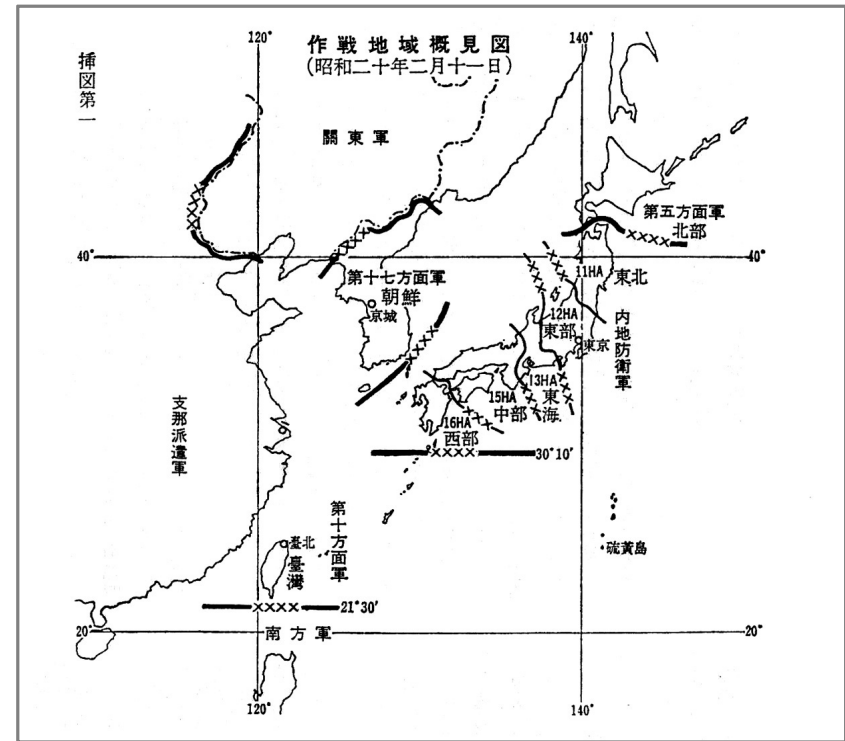
대본영에서 본토결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1945년 4월 8일자로 발령된 '大陸指 第2438號'의 決號作戰이 확정되었다. 결호작전이란 본토와 그 주변의 영토 및 근해로 진공하는 미군을 擊攘하기 위해 본토와 한반도를 일곱 개의 작전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구분한 作戰을 말한다.⁶⁾ 이는 대체로 다음 [지도 1]에 나와 있는 각 방면군의 작전구역과 일치하며, 한반도는 제17방면군이 담당하는 7호 작전구역이었다.

[지도 1]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5, 17, 10방면군이 본토의 외곽을 담당하고, 본토의 내부는 다시 다섯 개의 작전구역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키나와가 큐슈가 아니라 타이완을 거점으로 한 제10방면군의 작전구역에 해당되나, 원래 오키나와는 1872년 廢藩治懸當하기 이전 까지도 에도막부와 사츠마번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했던 류큐 왕국이 있었던 곳이다.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 일본인이 되었지만 일본인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오키나와인의 현실이 반영된 작전구역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본영은 오키나와전투 이후 미군의 제1 상륙지점으로 큐슈 지역을 예상하면서 이곳 전체를 관할하는 독립된 작전구역을 가진 부대, 곧 제16방면군을 배치하였다. 특별히 본토결전에 집중하려는 의도와도 연관이

5)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大本營陸軍本部』 10, 1975, 9~13쪽.

6) 대본영은 결호작전과 더불어 동지나해 주변에 대한 天號作戰도 벌였다.

[지도 1] 본토결전에 따른 각 방면군의 작전구역(1945. 2)



※ 비고 : HA는 방면군 표시이며, '북부', '동북', '조선' 등은 군관구를 가리킨다.
출전 : 防衛廳 防衛研修所, 『大本營陸軍部(10)』, 朝雲新聞社, 1968, 18쪽.

있었겠지만, 전통적 공간관념의 반영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본토는 칸토우, 칸사이, 시코쿠, 주고쿠로 나누며 이와 별도의 섬인 큐슈는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정치영역과 세력이 있었던 곳이다. 큐슈지역만의 작전구역 구분은 자연 조건과 역사, 공간관념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자연적 조건에 따른 분리이면서도, 일본인들이 '内地'라고 불렀지만 일본은 아니었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도 황국신민이자 '내지인'이라고 불렀지만 일본인이 아니었던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작전구역 구분이었다.

요컨대 결호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군사적 고려만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2) 본토결전을 위한 남서해안의 부대 배치

새로운 작전 방침과 구역을 구분하는 과정은 지휘부대를 재조정하는 과정도 동반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부대의 지휘체계를 기본적으로 作戰과 軍政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1945년 2월 17일자로 조선군사령부가 第17方面軍(작전)과 朝鮮軍管區司令部(군정)로 분리되었고, 사령관은 지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겸직하였다. 조선군관구사령부는 한반도 전체에서 군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1945년 5월 30일자로 함경도 지역을 작전구역에 새로 포함시켰던 관동군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도 있었다. 그렇지만 제17방면군은 對蘇作戰 대신에 對美作戰을 담당하는 것으로 작전임무를 변경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때 한반도를 담당하는 한국주차군사령부가 편성된 이래 제1작전 목표를 변경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⁷⁾

대미작전과 더불어 대소작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 28일 경성에서 제17방면군사령관, 그리고 鎮海要港府司令官 및 朝鮮總督이 만나 3인의 협의체도 만들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위 전쟁 지도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조선에서의 막판 총동원을 위해 중앙-지방(각 사관구)-지구(道の 지구사령관) 연락위원회를 조직하고, 작전·방위·정보·운수·생산·노무 등에 집중하기로 합의하였다.⁸⁾ 상층부의 협의구조와 하부로의 기간체계를 군 중심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조선총독부는

7) 자세한 것은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49, 2003, '제1장 2)절' 참조. 이 원고는 대폭 수정·보강되어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실』(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에 수록되어 있다.

8) 朝參電 第1847號(3. 20), 『機密作戰日誌(乙綴)』: 朝鮮軍殘務整理部, 第17方面軍作戰準備史. 이하 '第17方面軍作戰準備史'로 줄임

본토결전을 위해 조선군을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제17방면군은 4월 10일자로 기존의 留守 第19, 20, 30師團을 평양, 경성, 羅南師管區로 개편하고 대구와 광주에도 師管區를 신설하였다.⁹⁾

본토결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도 재편되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45년 4월 17일 군관구, 사관구, 지구사령관구와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을 전담할 서기관을 각 道에 임명하기로 하였다.¹⁰⁾ 또 사관구 설치에 맞추어 4월 20일부터 조선의 방공구역을 북선(함경도), 서선(평안도), 중선(황해, 경기, 강원, 충청도), 남선(경상, 전라도)지구로 재편하였다. 地上防空은 조선총독부에서 담당하고, "방공은 즉 생산이다"라고 주장하는 朝鮮軍管區司令部에서 지원하는 체제였다.¹¹⁾ 또, 같은 날 조선총독부는 본부 "행정의 철저한 간소화"를 달성하여 "行政面의 決戰體制"를 "완성"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정책의 대강에 관해 종합·기획·통제하는 기관으로 되고(1室 47課에서 1실 36과로 축소), 군수·식량 생산 및 방위 등 모든 사무는 제일선, 곧 본토결전을 지원하는 지방의 관계기관에 위임되었다.¹²⁾

한반도에서의 본토결전을 위한 조직체계가 잡혀가는 가운데 두 개의 사령부는 조선군사령부가 있던 龍山에 두었다. 1945년 당시 용산에는 전투병력보다 보충병력을 구성하는 보충대와 보급창 등 지원부대가 더 많았다.¹³⁾ 전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병력은 대소작전을 위해 함경도에, 또한 대미작

9) 軍令陸甲 第25號 在內地, 朝鮮留守師團司令部稱號變更, 師管區司令部臨時動員第325次復歸要領(2. 9)(軍令綴 4)에 따른 조치인데, 사관구사령부에는 地區司令部, 補充隊, 警備隊, 特設警備隊, 特設警備工兵隊, 病院 등이 소속되었다. 사관구별 담당구역: 평양-평안도와 황해도, 나남-함경도, 경성-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광주-전라도(제주도 포함), 대구-경상도.

10) 築朝參電 第2848號(4. 20), 『機密作戰日誌(乙綴)』.

11) 『每日新報』 1945. 4. 18, 2. 25.

12) 築朝參電 第2848號(4. 20), 『機密作戰日誌(乙綴)』: 『每日新報』 1945. 4. 18.

13)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신주백, 용산과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6, 2007, 8 참조

전을 위해 남서해안과 제주도에 각각 집중 배치되었다. 애초 한반도에 있던 대부분의 병력을 사관구별로 분산배치하면서도 남서해안에 집중했다면, 대소작전의 전투를 직접 준비한 부대는 중국에서 긴급히 이동하여 편성된 제34군이였다.

새로운 부대배치는大本營의 전체적 작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대규모 병력의 재배치는 2월 28일자에 확정된 지침에 의거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에는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주둔할 제150, 160사단이 '沿岸配備師團'으로 동원되고, 제120사단이 '決戰師團'으로 동원되었다.¹⁴⁾

다음 [지도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배치는 광주·전남지방에 제150사단이 집중 배치되었고, 전북지방에 160사단이 집중 배치되었다. 이 지역에는 기존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의 경우 식민지 시기 초기부터 1944년까지만 해도 대구에 본부를 둔 제80연대 산하 1개 대대만이 大田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群山과 海南 일대로 미군이 상륙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자 1945년 2월 28일자로 서둘러 두 개 사단을 각각 새로 편성했던 것이다. 광주와 군산에 각각 사령부가 있었던 제150, 160사단은 상륙하는 미군을 저지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에 해안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계속하였다.

제120사단은 1944년 11월 21일자로 일본 시코쿠 香川縣에 있는 善通寺에서 편성된 사단이다. 편성 후 만주의 동부지역에서 치안유지와 경비 등을 담당했으나, 1945년 3월 한반도에서의 본토결전을 준비할 필요성 때문에 제17방면군 예하로 편입되었다. 사단 사령부는 경상북도 慶山에 있었지만, 부대의 주력은 부산과 대구 쪽에 주둔하였다.¹⁵⁾ 또한 제320사단도 있었다.

14) 『大本營陸軍本部』 10, 23쪽. '연안배비사단'은 해안에 집중 배치된 사단이고, '결전사단'은 연안배비사단의 후방에 있으면서 미군의 상륙지점에 집중 배치될 사단이었다.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편성된 연안배비사단은 모두 16개였다.

15) 제120사단은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만주와 함경도로 진격해 오자, 사단 전체가 서둘러 평안도지방으로 이동하던 중, 사단 주력은 용산에서 8·15를 맞았다. 예하의 보병 제261연대만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 사단은 1945년 5월 23일 경성에서 편성을 착수하여 7월 25일 대구에서 편성이 완료된 부대로서 경성부터 대구 사이의 지역을 담당하였다.¹⁶⁾ 제121사단을 대신하여 배치되었을 것이다. 독립혼성제127여단도 있었다. 본토결전을 위해大本營에서 5월 23일자 제3차 兵備 때 편성된 부대인데, 주력은 부산에 있었다. 부산항을 지킴으로써 대륙과 본토의 연계가 차단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을 것이다.

남서해안의 부대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17방면군은 미군의 상륙을 예상해서 군산 일대의 서해안과 부산항 중심의 동남해안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군산 일대의 병력 배치가 상륙하는 미군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둔 병력 배치라면, 부산 일대는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두고 있기는 했지만 더 큰 의도는 항구방어였을 것이다. 부산에 요새사령부를 둔 이유 가운데 일부가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진해해군기지의 서쪽을 방어하며 여수항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요새사령부를 둔 여수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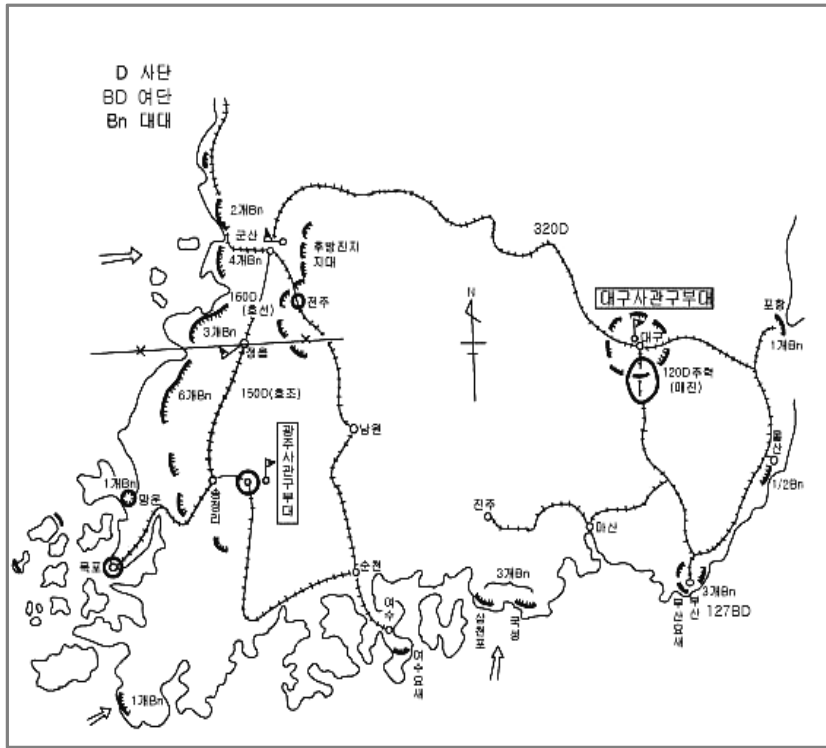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 [지도 2]와 같다

조선총독부와 제17방면군은 한반도에 새로운 병력이 대규모로 배치됨에 따라, 이들 부대의 이송과 경비, 주둔지 설치와 보급품, 작전 시설의 건설 등에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투병력으로 즉각 활용할

16) 제320사단은 소련군의 참전에 대응하여 신속히 함흥과 원산으로 이동하던 도중 패전을 맞았다.

17) 본토결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大本營에서 남서해안 일대에 대한 전력 재배치보다 더 중요시했던 곳은 제주도였다. 그래서 제주도지역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제58군을 우선 창설하고 독립전차여단도 배치하였다. 그것은 지휘부대의 위상과 병력, 화력에서 부산 및 여수 요새사령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즉 제58군은 중국 본토에서 급히 제주도로 이동하여 본토결전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는 독립된 지휘조직이었다. 형식상 제17방면군의 산하 조직이었지만, 실제로는大本營과 직접 연계를 맺고 주요 방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大本營의 의도를 더 많이 반영한 부대였다. 본토결전에서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大本營의 조치였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성윤 위음, 앞의 책 참조.

[지도 2]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본토결전'을 일본군 배치도



- * 비고 : * 본토결전에 대비한 한반도 전체의 배치 현황에서 남부지방에 관해서만 제시하였다.
- *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 대전의 제121사단은 6월에 제주도 본토결전을 준비하는 제58군 예하로 편입되었다.

출전 :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49, 2003.

만한 자원, 곧 현역관정을 받은 사람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을중, 곧 제1보충병 관정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을 1945년 음력 설이 지난 이후부터 대규모로 징병하였다.

동원된 보충병은 전투부대원이 아니라 노무동원자원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용산과 평양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서남해안 일대에 배치된 것이 아니었다. 거의 대부분 광주사관구사령부, 대구사관구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산하 연대에서 곧 바로 징병되었고, 이어 주둔지로 가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⁸⁾ 작전을 담당하는 병력이었다면 제17방면군의 지휘를 받는 부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았겠지만, 제17방면군으로서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더구나 본토결전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많은 보충병을 징집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배치된 부대원들은 대부분 특설근무대, 특설경비공병대 등에 배속되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군복을 입고 있는 노무자였지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이 아니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그만큼 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갔던 것이다.

달리 보면, 조선총독부 스스로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미 국민징용령에 의해 동원할만한 노동력은 대부분 일본 등지로 동원된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1945년 시점, 즉 가장 중요한 전쟁 시기에 이르러서는 징병이라는 군대식 강제 동원방식이 아니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제국주의로 전락했던 것이다. 내부적 한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근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18) 이에 관한 사례는 『일제시기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 일제강점기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9~41쪽 참조.

3. 부산요새와 부산요새사령부

(1) 부산 : 본토와 대륙 연결의 핵심 통로

부산은 경성-평양-신의주, 그리고 중국의 단둥으로 연결되는 경부선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이 있는 곳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대륙경영에서도 경부선은 대단히 중요한 幹線이었다. 부산은 일본군이 대륙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큰 항구였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산은 일본군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큰 교두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병력과 군수품을 대륙으로 나를 수 있는 출발지였다.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도 부산에는 전투보병 중심의 육군부대가 주둔한 적이 없었다. 이때까지 부산은 군대와 군수품의 中繼地로서 기능한 곳이었지 전투부대가 주둔하는 軍都는 아니었던 것이다.

부산에 대규모 전투병력이 주둔한 것은 1945년 본토결전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 앞서 언급했던 독립혼성제127여단 등 주둔 부대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에 주둔한 부대 가운데 전투 능력을 갖춘 부대는 독립혼성여단과 요새를 지키는 고사포부대와 야전중포병부대 정도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수송 및 지원부대, 노무 및 경비부대였다. 일본제국주의 전체 운영에서 부산항이 갖는 기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대배치다.

부산에 주둔한 부대는 기본적으로 조선군관구사령부에 직속한 부산요새사령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들 부대 가운데 육지가 아닌 하늘과 바다에서 밀려오는 적, 즉 미군의 공중 공격을 저지할 부대는 고사포제151연대와 부산

<표 1> 1945년 8월 15일 당시 부산 주둔 일본군 부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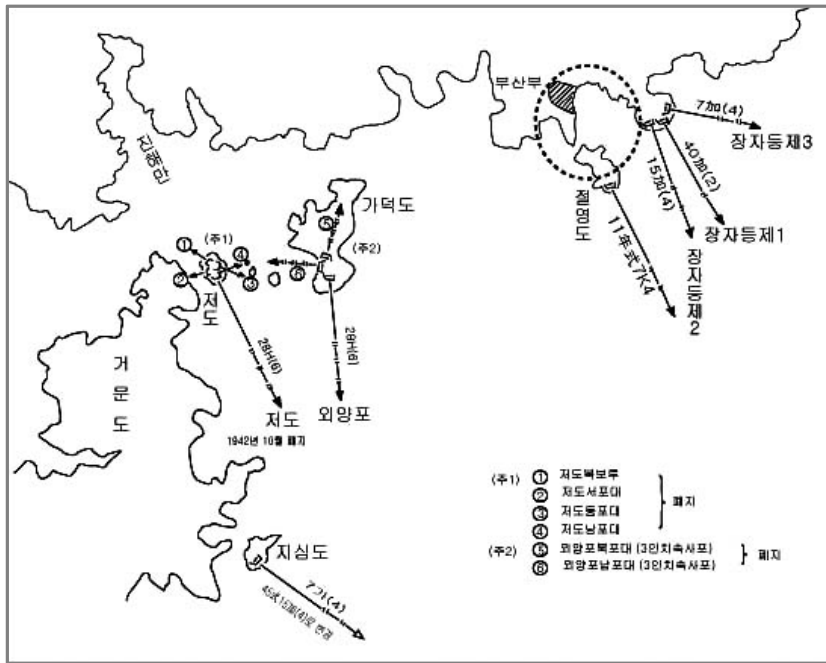
당시 지명	부 대 명	병단 문자	예속	부 대 명	병단 문자	예속
해운대	406특설경비공병대	築	17HA	부산병참부		朝軍
부 산	獨混127여단사령부	壯	17HA	부산수송통제부		朝軍
	독립보병760대대	壯	17HA	독립자동차399중대	朝	朝軍
	독립보병761대대	壯	17HA	독립자동차301중대	朝	朝軍
	獨混127여단포병	壯	17HA	37야전근무본대	築	17HA
	獨混127여단공병	壯	17HA	육군근무173중대	築	17HA
	관동군보감부산지부		補監	육군근무174중대	築	17HA
	고사포151연대	築	17HA	육군근무175중대	築	17HA
	137정차장사령부	路	大鐵	육군근무214중대	築	17HA
	169정차장사령부	路	大鐵	육군근무215중대		17HA
	부산지구헌병대		朝軍	특별육군근무106중대	朝	朝軍
	41경비대대	築	17HA	특별육군근무107중대	朝	朝軍
	155경비대대	朝	朝軍	특별육군근무108중대	朝	朝軍
	특별경비459대대	築	17HA	부산요새사령부		17HA
	부산육군병사부		朝軍	부산지구사령부		朝軍
부산요새중포병대	築	17HA	조선군관구*병*마	朝	朝軍	

※ 비고 : • **표시는 인쇄상태 불량으로 원문의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 17HA는 제17방면군사령부, 朝軍은 조선군관구사령부 소속이라는 뜻이다.

출전 : 第2課4班, 『部隊(終戰時位置)索引簿機』, 1946.

요새중포병연대였다. 즉 부산항의 방어를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 [지도 3]에 나와 있는 '원형점선'을 관찰한 고사포부대가 부산의 하늘을 지키는 일본군 부대였다면, '張子嶺 제1~3'의 포대가 있는 중포병연대는 부산의 바다와 하늘을 방어하는 일본군 부대였다. 이들의 방어망을 정리하면 [지도 3]과 같다.

[지도 3] 1941년 말 부산요새의 방어도



※ 비고 : 1941년도 방어구도이지만 기본 배치와 구도는 패전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출전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 永興灣 羅津 麗水 重砲兵聯隊史』, 세이코産業株式會社, 1998, 98쪽.

부산요새는 용호동 일대와 절영도, 그리고 가덕도와 저도를 축으로 한다. 가덕도와 저도, 지심도가 진해요항부를 지키는 시설지였다면, 용호동 일대와 절영도의 중포병부대는 부산항을 지키는 부대였다. '부산부'의 하늘을 지키는 부대는 고사포제151연대였다. 부산부 시내의 방어는 기본적으로 120사단 소속의 제259연대와 2개의 독립보병대대가 담당하였다.

부산에 이와 같은 방어기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1942년 6월 일본 육군이 1941년도 동원계획을 수정하면서부터였다. 1942년 7월 1일자로 진

해만요새사령부의 명칭이 부산요새사령부로 바뀌고, 사령부도 부산으로 옮겼다. 또한 부산요새중포병연대의 전신인 진해만요새중포병연대도 주력을 부산방면으로 옮기고, 명칭도 鎭海灣 대신 釜山으로 바꾸었다.¹⁹⁾ 진해보다 부산항의 정면을 중시하여 수송동맥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군으로서는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대본영의 새로운 방침은 부산과 진해만을 하나의 방어요새기지로 상정하되, 진해만 방어에 더 비중을 두었던 기존의 작전계획을 바꾼 결과였다. 왜냐하면 일본 육군은 스스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 1942년부터 관동군이 특별 군사연습, 곧 關特演을 실시하면서 대규모 병력이 부산을 거쳐 이동함에 따라 부산항을 더욱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부산요새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종 포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를 경비할 부대를 설치할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조선군은 1944년 1월부터 특설경비 제459대대를 편성하여 담당하도록 했고, 1945년 들어서는 留守제20사단에서 보병 2개 중대를 착출하여 경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전선이 악화되고 소련과의 긴장도 더욱 조성되면서 부산항을 통한 군대의 통과가 빈번해지고 군수품 수송도 늘어났다. 부산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조선군으로서는 요새도 지키고 이동병력과 군수품도 관장할 수 있는 전담부대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본영은 1944년 5월 제41경비대대를 편성하였다. 여기에서 '본토결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비중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었다. 대본영으로서는 이미 미군 잠수함으로 해양 수송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그나마 본토와 대륙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인 부산항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그래서 1945년 5월에 120사단의 제259연대, 7월에 이를 대신한 독립혼성제127여단이 부산요새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부산요새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갔다.²⁰⁾

1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 永興灣 羅津 麗水 重砲兵聯隊史』, 세이코産業株式會社, 1998, 96쪽.

(2) 高射砲 제151연대의 임무와 현황

그러면 부산요새사령부 예하 부대 가운데 부산항 방어의 핵심 부대로서 하늘을 책임지는 高射砲제151연대와 대한해협의 방어도 책임졌던 중포병대 특히, 용호동 포대에 관해 정리해보자.²¹⁾ 이렇게 하면 부산항 입구의 방어 구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먼저 고사포제151연대부터 정리해 보면, 일본군의 입장에서 부산의 하늘을 적인 미 공군으로부터 지키는 부대는 朝鮮제7420부대, 즉 高射砲제151연대이다. 원래 이 연대는 防空제41연대였는데, 1944년 들어 개칭되었다. 다만 부대 번호는 그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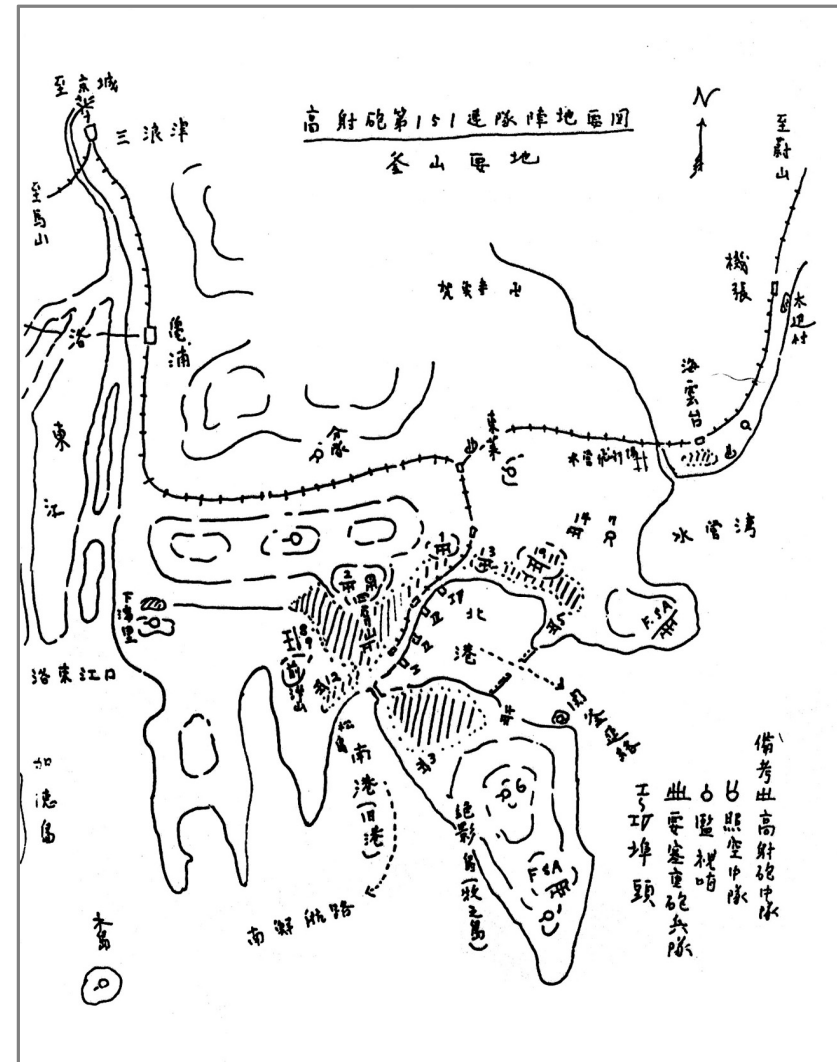
조선군은 1941년 11월 일본군의 남방작전 준비의 일환으로 하달된 <요새 방공제부대의 임시편성>에 따라 2개의 방공연대를 편성하였다. 방공 제41연대는 그 가운데 하나였다. 편성 당시 제41연대는 연대본부, 고사포 5개 중대, 照空 1개 대대(2개 중대)였으며, 각 중대는 10挺 고사포 4門을 보유하였다.

1944년 4월 '방공부대의 개편강화'를 지시한大本營의 '令甲第137號'에 따라 그해 6월부터 방공병은 고사포병으로, 요새포병은 중포병으로 개칭되었다. 기존의 명칭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高射로 바꾼 것이다.

1944년 10월 포병부대의 편제개정에 따라 연대의 규모 자체가 증강되어 연대본부, 고사포 2개 대대, 照空1개 대대(2개 중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사포대대는 6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각 중대에는 6門의 포가 있었다. 1945년 2월경까지 1개 대대분에 해당하는 36門의 포가 교부되었다. 편제상 총정원은 2,577명이었다.

20)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같은 책, 101쪽.
 21) 고사포 제151연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滿洲 朝鮮 85 朝鮮釜山高射砲隊長의回想』에 나온 내용 가운데 관련된 것만을 정리하였다. 회고록은 1943년 7월부터 연대장으로 근무한 長岐準吉이 필사한 것으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 4] 부산지역 고사포 제151연대의 배치도



※ 비고 : 중대의 위치는 1~14번까지 있다.
 용호동과 절영도에 FSA로 표시된 것이 부산요새중포병연대의 위치 표시다.
 출처 : 『滿洲 朝鮮 85 朝鮮釜山高射砲隊長의回想』(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고사포제151연대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여수요새고사포부대에 병력을 파견하고, 인천과 목포에도 고사포를 배치하는 등 한반도의 남부지방에서 일본군의 지상작전 준비 가운데 방공 분야를 담당하였다.

고사포제151연대는 1945년 8월 패전 당시 14개 중대가 있었다. 이 가운데 2개 중대는 제주도의 방공강화를 위해 1945년 5월 6일자 명령으로 제주도에 파견되어 26일자로 제58군사령부 예하로 편입되었다. 6월에는 기관포 1개 소대가 倭館에 파견되어 낙동강 철교를 방공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일본의 패전 당시 고사포 2개 대대에는 7미리 고사포 각 4문을 사용한 제 1~5중대, 8미리 고사포 각 6문을 사용한 제6~12중대, 10미리 고사포 각 6문을 사용한 제13, 14중대(제주도 파견)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연대장 직할의 연대지휘반, 監視哨, 고사기관포대, 고사기관총대가 있었다.²²⁾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당시 이들의 배치 상황을 정리하면 [지도 4]와 같다.

(3) 부산요새중포병연대 임무와 용호동 시설지

부산요새중포병연대는 1942년 9월의 편제 개정에 따라 6개 중대로 구성된 2개 대대에 999명을 편제정원으로 한 부대였다.²³⁾ 앞서도 언급했지만, 고사포제151연대가 부산의 하늘을 지키는 부대라면, 부산요새중포병연대는 해안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적의 비행기와 함정으로부터 부산항을 방어하고, 동시에 대한해협을 지나는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부대였다.

부산항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본영과 조선군이 부산요새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부산요새중포병연대와 관련해서는 진지의 강화로 나

22) 덧붙이자면, 高射砲제151연대의 관할구역이었던 제10, 11중대의 활동지역에는 오늘날 신선대 부두 근처도 포함된다. 이곳에는 화물검역소의 기능을 하는 용당동 검역소가 있었지만, 조선인에 대한 징용과 징병이 늘어나면서 청장년의 신체검사소로 바뀌었다. 바다 건너 일본과 태평양 등지로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모두 부산을 거쳐 나갔기 때문이다.

23) 이하 내용은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99~103쪽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타났다. 즉 韌強性을 강화하기 위해 포탄의 사정거리는 최소한도로 하는데 만족하면서 적의 상륙에 대항할 수 있도록 포병의 전력을 철저하게 집약하려고 하였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용호동 시설지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과 같은 洞窟式 砲臺이다([그림 1], <사진 1~4> 참조). 더구나 대본영에서는 1945년 7월 대한해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화포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요새사령부에서는 엄호력을 강화하기 위해 15cm 두께의 동굴진지를 축성하고, 40cm의 방탄벽을 만들고자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용호동에 남아 있는 군사 시설지도 이때 대폭 강화된 결과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²⁴⁾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당시 부산요새중포병연대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부산요새중포병연대의 현황(1945년경)

포대명	砲種	門數	연대 병력			적요
			장교	하사병	계	
장자등	砲塔40加	2	6	220	226	제1중대
	38榴	4				
	45式15加	4	4	170	174	제2중대
	38式 野砲(對空 설비)	4				
	11年式7加(對空·對海上 겸용)	4	4	120	124	제3중대
절영도	上同	4	4	120	124	제4중대
외양포	38榴	6	4	170	174	제5중대
	38式 野砲	4				
지심도	45式15加	4	4	170	174	제6중대
계		36	26	970	996	

※ 비고 : 式 = 口徑, 加 = cm

출전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 永興灣 羅津 麗水 重砲兵聯隊史』, 세이코産業株式會社, 1998, 98쪽.

24) 용호동전적지의 전체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없었다. SK뷰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데, 현지의 시설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있는 곳의 조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 당시 부산요새중포병연대의 핵심 병력은 오늘날 장자등 포대가 있는 용호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한해협의 방어도 겸해야 했기 때문에 절영도보다는 더 많은 시설물을 건설했을 것이다.²⁵⁾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은 산의 흙을 전부 걷어내고, 시멘트로 전체 진지의 건물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 다시 흙으로 덮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 위장하였다.²⁶⁾ 적에게 발각될 염려가 없는 시설지였던 것이다.

부족한 대로 오륙도 등대에서 찍은 <사진 1>을 가지고 용호동포대의 배치를 일단 추정해보자. 앞의 [지도 3]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건설 중인 아파트의 바로 뒤쪽의 주변에 '장자등 제1~3'포대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사진 1> 오륙도에서 본 용호동 포대 시설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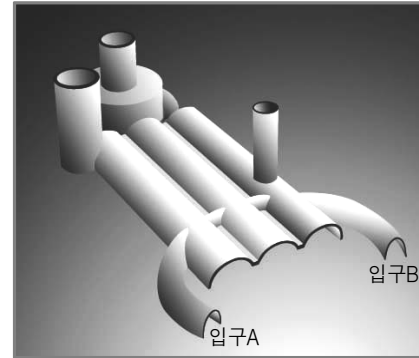


25) 하지만 현재 용호동 일대 시설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또한 외양상으로 용호동의 前景을 통해 주요 시설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이조차 어렵게 되었다.

26) 전중희(1931년생)의 증언이다.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족과 문화』, 2001, 204쪽.

<사진 1>에 보이는 아파트 우측에 나무가 없는 산의 능선을 따라 비포장 도로가 보이는데, '타원형'으로 표시한 일대에는 '장자등 제3'포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의 진지 내부를 그려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용호동 '장자등 제3' 내부도(추정)



<사진 2> 외부 환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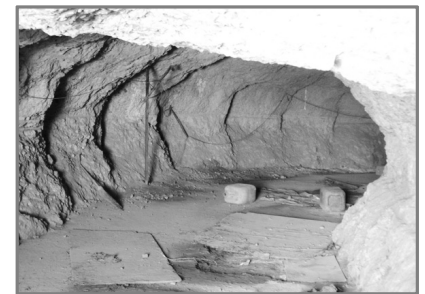
출전 :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족과 문화』, 2001, 202쪽.

지금도 이곳에는 탄약이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기통으로 추정되는 <사진 2>의 시설물과 <사진 3>과 <사진 4>처럼 '입구A, B'로 추정되는 시설지가 등이 남아 있다.

<사진 3> 입구 A 또는 B. SK뷰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뒤의 도로 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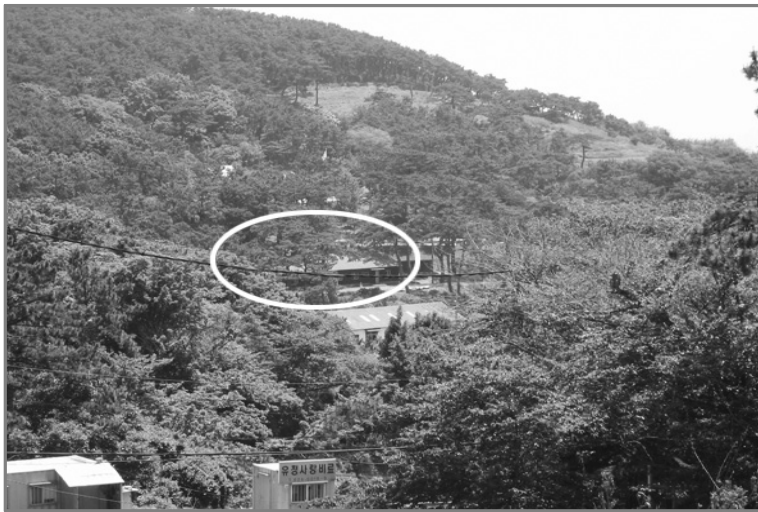
<사진 4> 사진상으로 보면 '입구 A'의 통로로 추정. SK건설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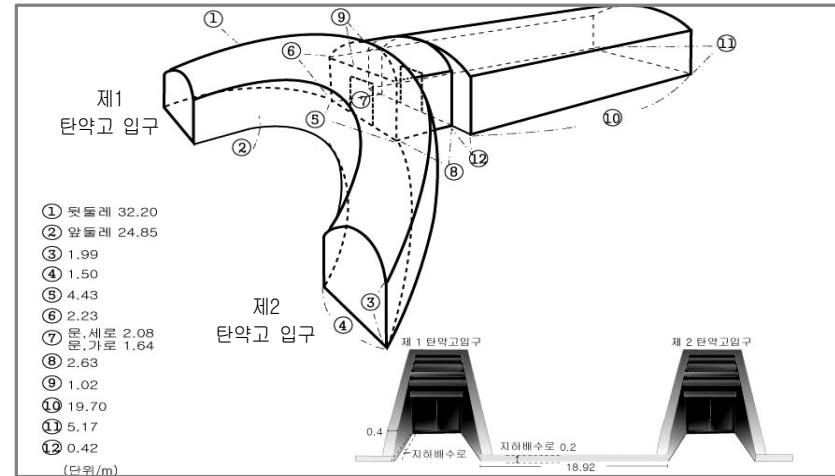
또한 <사진 1>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뒤쪽 우측에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현재 국군기록정보관리단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을 포함하여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사진 5>이다. 사진의 중앙에 '타원형' 표시를 한 부분이 국군기록정보관리단의 건물들 가운데 탄약저장고와 말의 축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지금은 부대의 체육 시설이 있는 곳이지만 건물 자체는 잘 보존되어 있다. 탄약고의 내부는 군 부대의 사정 때문에 찍을 수 없었지만, 필자가 직접 실사한 기억을 되살려 도면으로 그려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양쪽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레일이 깔려 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표 2>의 대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포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탄약의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옮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저장소에서 저장소의 입구까지 레일로 운반하면, 거기에서 마차로 포탑 등까지 운반하였을 것이다. 위치상으로 보아 '장자등 제1'포대와 관련이 있는 탄약고였을 것이다.

<사진 5> 국군기록정보관리단 원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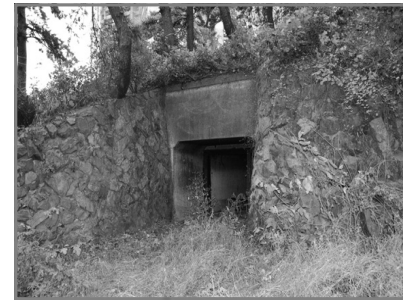


[그림 2] '장자등 제1'의 탄약고(추정)



또한 필자가 현지를 조사할 당시 건설 중인 SK뷰아파트 뒤편에도 시설물이 하나 있었다. 지금은 흙으로 매워져 매몰된 채 그대로 남아 있어 실사를 하지 못했지만, SK건설측에서 제공한 <사진 6>과 <사진 7>에 따르면 탄약 등을 보관하는 또 다른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자등 제2'포대와 관련이 있는 탄약고였을 것이다.

<사진 6> 매몰된 또 다른 탄약 저장고의 입구.



<사진 7> 안에서 입구 쪽을 찍은 사진



4. 가덕도 외양포의 포병진지

(1) 가덕도 외양포 기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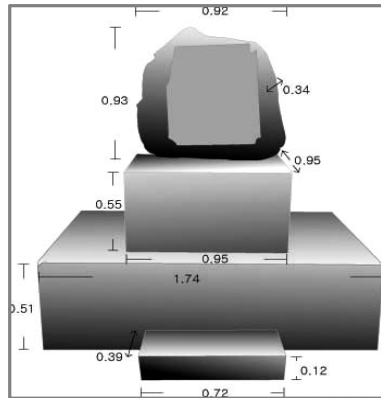
가덕도와 진해, 그리고 부산의 위치 및 군사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제시한 '[지도 3] 1941년 말 부산요새 방어도'에서다. 가덕도의 시설지는 진해 해군 기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었다. 또한 지도상으로 보면 부산항의 좌측을 방어하는 핵심 군사기지였다. 때문에 <사진 8>의 石物이 있는 지점에 설치된 대포는 사진의 중앙에 보이는 산을 넘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무기였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역사와 시설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남아 있는 加德島의 일본군 시설지는 外洋浦 마을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사진 8>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 포대 터의 비석에는 “司令部發祥之地”라고 쓰인 石物이 있다.²⁷⁾ 이를 실측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사진 8> 비석의 뒤쪽이 포대 시설지이다.



[그림 3] 가덕도 중포병대의 연혁 비석(단위 :cm)



비석의 앞면에는 “司令部發祥之地. 明治三十八年 四月 二十一日 編成下 令. 同年 五月七日外洋浦 上陸”이라 나와 있다. 이 기록은 일본방위성 방위연구소의 도서관에 남아 있는 문헌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 육군은 <대련만 및 진해만요새사령부 편성 요령(1905.4.15)>에 따라 진해만요새사령부를 1905년 4월 29일 오사카에서 편성하였다.²⁸⁾ 신설된 사령부는 1905년 5월 7일 외양포에 상륙하면서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예하로 들어갔다. 사령부는 요새포병대대를 예하에 두고 진해만의 방위를 담당하였다.²⁹⁾ 당시 대대 규모의 요새사령부는 산하에 2개 중대에 75명 등 총인원 80명과 마필 10두를 두었다.

1905년 12월 明治天皇이 재가한 <진해만요새방어요령서>에 따르면 가덕도의 일본군 포대 배치는 [지도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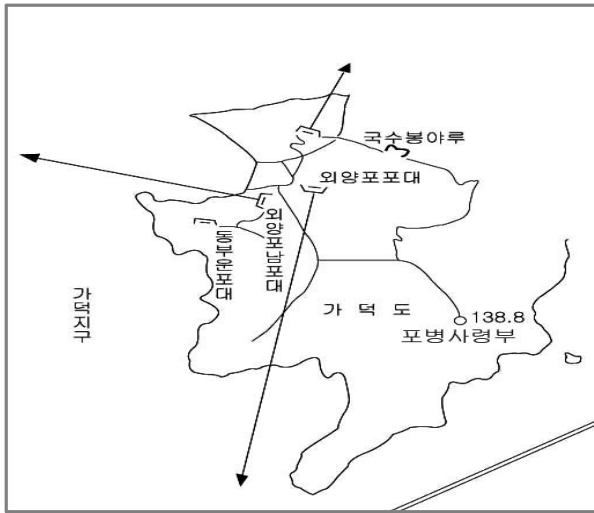
가덕도에 포병부대가 배치된 이유와 관련하여 러일전쟁이 막바지로 달리던 시점에 결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 주둔 포병부대는 러시아와의 마지막 승부, 곧 東海를 향해 이동해 오고 있던 러시아의 발틱함대에 대비하여 긴급히 편성된 부대였다. 즉 1905년 3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두 나라 육군의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본군이 봉천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일본군은 만주에서의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러시아의 세계 최정예 함대인 발틱함대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희망봉을 돌아 동해의 일본 해군을 향해 오고 있었다. 두 나라 해군은 1905년 5월 27, 28일 이틀간 동해에서 싸웠다. 일본해군이 동해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전황은 완전히 일본에 유리하게

27) 석물의 뒷면에 “昭和十二年 六月 建之”라고 나와 있다. 1937년 6월에 세웠다는 뜻이다. 석물은 외양포마을 입구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향토사학자가 이곳으로 옮겨 설치했다고 한다.

28)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71쪽. 이하 내용도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으므로 특별히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9) 대대본부는 1904년 12월에 가덕도에 상륙하였으며, 미리 와서 시설지를 건설하고 있던 築城團으로부터 여러 시설을 인계받았다.

[지도 5] 가덕도 포대 배치도



<표 3> 외양포 포대 포문 종류와 공사 일정

砲臺名	砲 種	공사 개시	공사 종료
포 대	28榴(6門)	1904. 8.20	1904.12.20
남포대	구식 야포 6門	1904. 9.10	1904. 9.18
북포대	上同	1904.10.21	1904.10.27

※ 비고 : 필자는 외양포 포대만을 조사했으며, 나머지는 흔적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시설지의 일부는 한국군에서 이용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출전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 永興灣 羅津 麗水 重砲兵聯隊史』, 세이코産業株式會社, 1998, 72쪽.

돌아갔다. 결과는 이러했지만, 일본해군이 발틱함대에 패배하면 러시아 해군으로서의 진해만의 위치상 이곳의 해군기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가덕도 포진지는 러시아와의 해전에 대비하고 진해만의 방위를 위해서둘러 만들어진 시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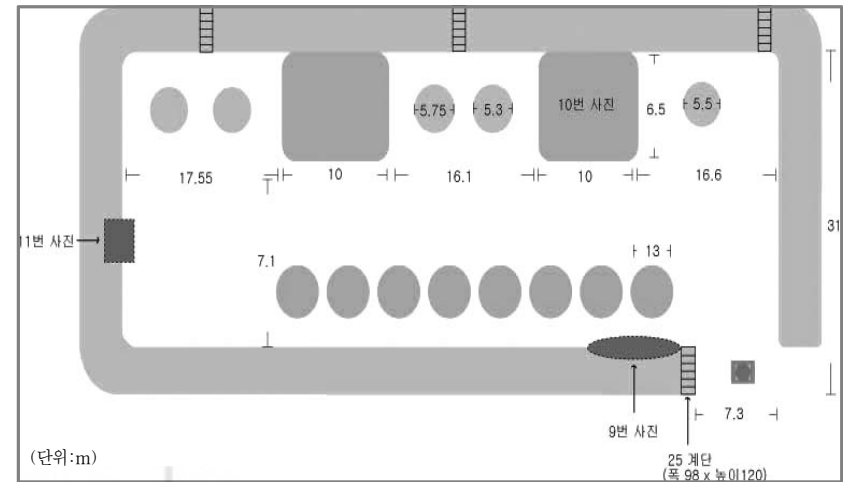
가덕도 포병사령부는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주둔하였다. 1905년 12월 <여순, 진해만, 영흥만요새 제부대의 정리요령>에 따라 부대가 축소되어 포병대대에서 포병대로 바뀌었다. 병력도 러일전쟁 당시보다 1/3 가량 축소되어 180명의 부대원에 말 1필뿐이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1910년 10월 요새포병의 명칭 변경에 따라 진해만중포병대대로 되었다. 앞의 <표 2>에도 나와 있듯이, 1945년경 가덕도 외양포에 있던 포병부대는 부산요새중포병연대 제5중대 소속으로 170명의 병력에 10門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2) 외양포 포대의 현황

외양포 마을에는 지금도 포병부대의 진지, 숙소, 우물, 무기고 등이 남아 있다. 이를 하나씩 간략히 언급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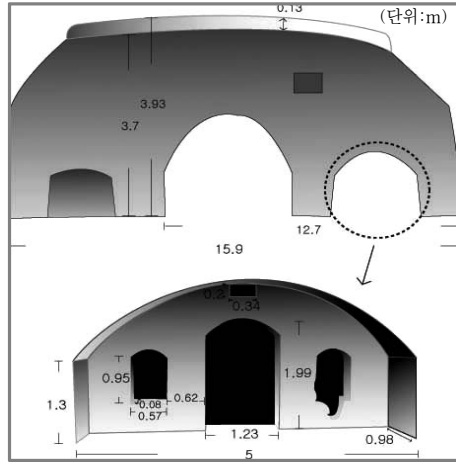
우선 포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외양포 포대의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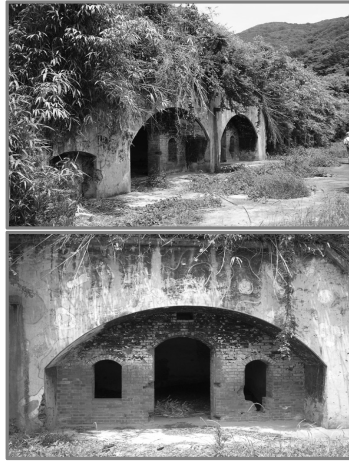


[그림 4]에 쓰여 있는 '9번 사진'을 그리면 [그림 5]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 9, 10>은 이들 입구의 실물 전경이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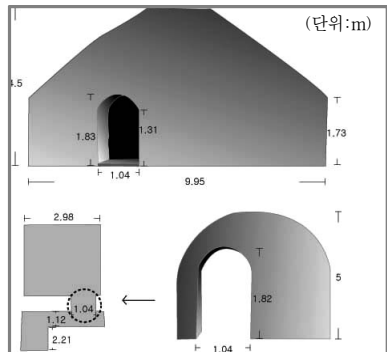


<사진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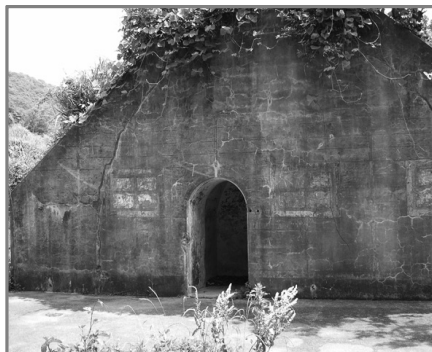


위의 [그림 4]에 나와 있는 '10번 사진'을 그리면 [그림 6]인데, 상단의 그림은 入口이고, 하단의 그림은 내부이다. 이 입구의 실물 전경은 우측에 있는 <사진 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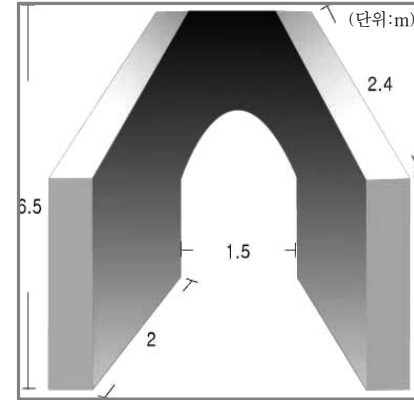
[그림 6]



<사진 11> 주둔 벙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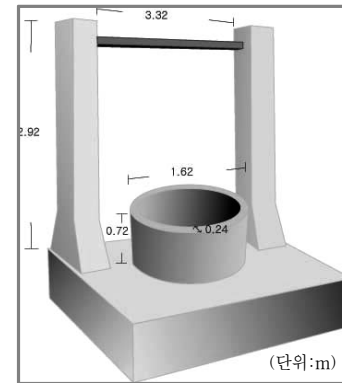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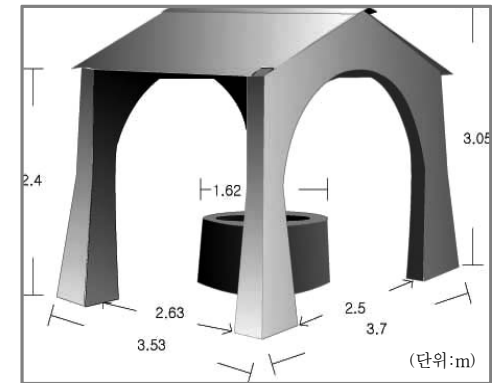
[그림 4]에 나와 있는 '11번 사진'은 [그림 7]과 같다.

포대가 주둔하고 있던 마을에 남아 있는 주요 시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가덕도에는 대규모 부대가 주둔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외양포에만 9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일부 측량한 건물을 제시하면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림 8]



[그림 9]



다음으로 그냥 버려져 있는 비석을 하나 보자. 진해만요새사령부는 가덕도를 포함한 진해(마산)구역과 부산 일대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사진 12>처럼 외항포의 어느 민가에는 '鎮海灣要塞 第1地帶標'라고 표식되어 있는 비석이 있다. 이는 진해만요새사령부의 관할 구역이 크게 가덕지구와 부산지구를 나뉘어 있었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즉, 진해만요새지를 제

1,2지대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요새지대를 고시하면서부터였다. 두 지구로 구분하는 것은 軍縮이 없었다면 추진되었을 사안이지만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 부대의 지휘계통이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을 구분하는 사고는 요새사령부 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두 지역을 합쳐서 보게 되는 1940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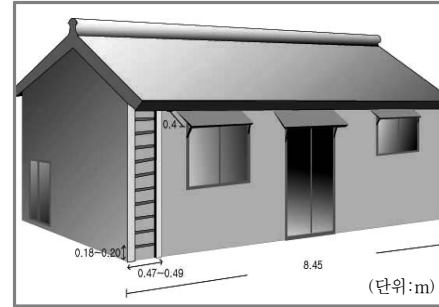
이어 사무실로 추정되는 건물을 보자. <사진 13>과 [그림 10]은 중포병대사령부가 있었던 건축물로 추정되는 곳이다.

<사진 12> 외양포 비석



포병부대의 장교 숙소로 추정되는 집은 [그림 11]과 <사진 14>와 같다.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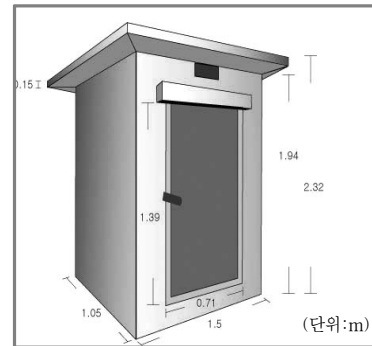


<사진 14>



포병부대의 무기고로 추정되는 건물도 있다. 아래 [그림 12]와 <사진 15>를 통해 확인해 보자.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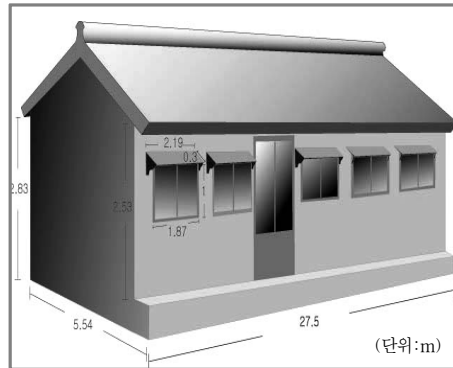
<사진 15> 참고



<사진 13> 주둔 막사



[그림 10]



5. 여수요새와 여수요새사령부

(1) 여수 : 호남 동부지역과 일본의 연결 통로

목포가 전남 서부지역의 대외진출지라면, 여수는 호남 동부지역의 대외 진출지이다. 여수는 특별한 산업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군사적 의미가 부산만큼 컸던 지역도 아니었다. 1945년 본토결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까지 여수의 군사적 가치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1945년 본토결전의 일환으로 제주도의 방어가 급했던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제주도로 이동시키는 한편, 거대한 군사요새를 서둘러 만들어 갔다. 이때 제주도에 파견되는 부대와 시설은 목포항과 여수항을 통해 건너갔다. 여수의 군사적 가치는 본토결전의 시기를 즈음해서부터 부각되었다.

여수에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41년부터였다.³⁰⁾ 즉, 1941년 7월 7일大本營에서는 '제101차 특임편 제1호' 여수요새사령부, 여수요새중포병대 및 기타 부대를 임시로 편성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들 부대의 편성은 마산중포병연대의 책임 아래 7월 18일자로 완료되었다. 9월 17일 현재 여수요새 부대는 589명의 총인원에 승마 7두였다.

여수요새는 일본 전쟁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중일전쟁이 신속하게 끝나지 않고 확대되면서 계획된 임시요새였다.³¹⁾ 원래 서해안의 목포, 안면도, 인천, 백령도에도 임시요새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건설된 요새는 여수요새뿐이었다.

여수요새의 부대는 요새공사가 완료된 1942년 4월 28일 마산에서 여수에

30) 여수요새에 관해서는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8, 280~284쪽을 축약한 것이며, 그래서 요새의 변화에 관해 언급할 때 별도의 전거를 제시하지 않겠다.
31)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영구요새로 상정하고 건설한 요새는 부산, 영흥만, 나진뿐이었다.

도착하였다. 또한 1941년 11월 20일 145명으로 여수요새방공대가 부산에서 편성되었으며, 1944년 4월 19일 여수요새고사포부대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이 부대는 1944년 10월에 부산에 있는 고사포제151연대의 편제 개정 때 통합되어 1945년 2월 부산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면 여수요새와 이를 지켰던 여수요새중포병연대에 대해 알아보자.

여수요새에는 1944년 말 현재 여수요새사령부, 여수중포병연대, 여수요새방공대, 특설경비 제405, 406, 407부대, 제408특설경비공병대, 여수육군병원이 있었다.³²⁾ 이들 부대는 진해의 서쪽 연안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물론 여수가 전라선의 출발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반도 및 대륙 수송과 관련된 여수항의 중요성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여수요새 부대의 병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여수요새 병비 개황(19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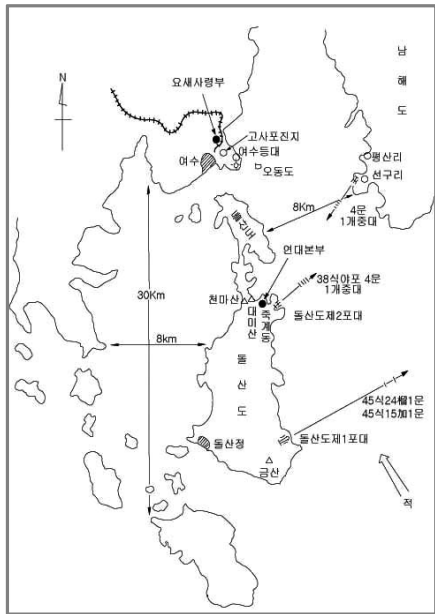
포대 명	포 종류	門	수비 병력			적요
			장교	하사병	계	
돌산제1	38식야포	4	4	70	74	
	고사기관총	1				
돌산중앙	45식24榴	1	3	50	53	
돌산북	45식15가	1	3	50	53	
돌산제2	38식야포	4	4	70	74	
	고사기관총	1				
남해도	38식야포	4	4	70	74	
	고사기관총	1				
계			18	310	328	

* 출처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重砲兵聯隊史』, セイコ産業株式會社, 1998, 280쪽.

32) 특설경비대는 1945년 들어 제주도 '본토결전' 준비가 더 급박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파견되어 연안경비, 경계 및 비행장 건설을 담당하였다.

1945년 5월경부터 제17방면군의 지시에 따라 모든 포대를 동굴진지에 수용하고자 조선인을 동원하여 横穴式 진지공사를 주야 24시간 작업하였다. 여수요새 부대의 배치도를 개략적으로 그리면 아래 <지도 6>과 같으며, 당시 포대가 있던 곳 가운데 하나인 향일암에 있던 돌산도 제1포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진 16>이다.³³⁾ 천해의 자연 조건을 이용해 야포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한 것이다.

[지도 6] 여수요새 배치도



<사진 16> 돌산도 제1포대가 있었던 곳



↑ 맨 좌측의 조그마한 돌출 부분에 포대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군 경비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하다.

출전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 永興灣 羅津 麗水 重砲兵聯隊史』, 七一工業株式會社, 1998, 280쪽.

33) 여수요새중포병연대의 돌산도 소재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사진 16>에 있는 곳은 현재 육군 해안 초소가 있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다른 곳은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여수 수상 비행장의 건설 경과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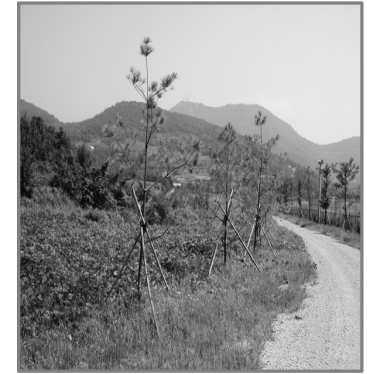
여수항의 대표적인 군사 시설지는 포대와 미완성된 수상 비행장이다. 포대에 관해서는 앞의 <지도 6>으로 대신하고, 본토결전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수상비행장에 대해 살펴보자.

한반도의 육지에 몇 개의 군사 비행장이 있었지만, 水上飛行場은 진해가 유일하였다. 여수 수상비행장의 경우 공사 중 일본이 패전하면서 완공되지 못하였다. 여수수상비행장은 210m의 길이에 100m의 폭으로 건설되고 있었으며, 완공 후에 전체 면적은 2,500제곱미터로 설계되었다. 수상기 기지에는 5대의 수상 비행기와 격납고, 그리고 공장과 군인들의 큰 거주지가 있었다. 때문에 44동의 공장 및 숙사가 있었다.³⁴⁾

지금은 한국화약 부지에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으며, 수상비행장의 전체 모습과 수상비행기가 착륙하여 격납고까지 말을 동원하여 옮기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착륙장과 인접한 일대는 현재 간척되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사진 17>).

그래도 남아 있는 시설물을 몇 가지 언급해 보자. 먼저 정문부터 보자. 해군기지의 정문은 오늘날 한화의 정문과 달리 여수 시내 쪽으로 200M 가량 앞에 있었다. 다음 <사진 18>에 나오는 왼쪽 편 길로 들어서는 지점에 부대 정문이 있었다.³⁵⁾ 넓게 건설된 이 길은 새로운 도로이며, 당시에 없었던 길이다.

<사진 17> 왼쪽 철조망 안쪽의 비포장도로까지는 한국화약의 부지이며, 사진의 맨 우측에 있는 철조망의 바깥은 간척지이다.



34) 이상은 『5 航空基地 95, 航空基地圖』에 있는 <표>와 『滿洲 朝鮮 131 設備工事設計圖』에 있는 도면을 필자가 문장화한 내용이다.

35) 최만섭은 1926년생으로 이곳에서 태어났다.

<사진 18, 19> 구해군기지 입구 및 방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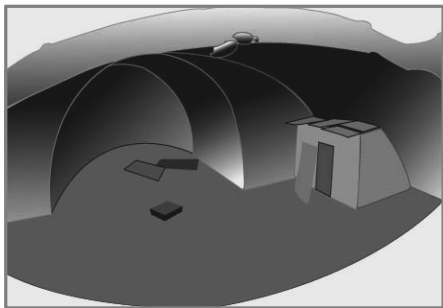
한화 정문을 들어가기 직전의 우측에 있는 <사진 19>의 시설지는 지금 방공호로 쓰이고 있는데, 당시는 탄약고였다. 이와 같은 문이 모두 5개가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최만섭씨의 증언에 따르면, 여순 사건, 한국전쟁 때도 인민군 또는 국군의 지휘소로 쓰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국화약 부지에는 두 개의 격납고가 있다. 하나는 흙으로 덮여 있어 그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화약측에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있다. 이를 각각 사진과 그림으로 표시하면 <사진 20>과 [그림 13]이다.

<사진 20> 비행기 격납고



[그림 13]



또한 <사진 21>의 격납고와 실측하지 못한 <사진 22>의 거대한 공장 굴뚝도 있었다.

<사진 21> 격납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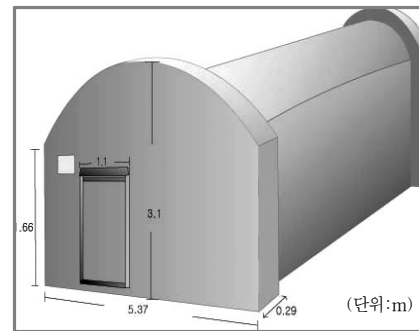


<사진 22> 굴뚝



수상비행기에 사용될 몇 개의 탄약고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방치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를 표시하면 [그림 14]와 <사진 23>이다.

[그림 14]



<사진 23> 무기저장고



6. 결 론 : 기념과 기억을 위해

이상으로 1945년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한 일본군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정리하고, 한반도 남서해안 일대 전반의 부대 배치 상황, 핵심 군사기지였던 부산과 여수 요새사령부의 역사와 남아 있는 시설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 일본은 1945년 들어 미군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들은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도와 남서해안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고 군사시설을 서둘러 건설하거나 늘렸다. 부산과 여수 요새사령부의 관할지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두 요새사령부는 제17방면군 사령부 직속이었다. 사단이나 독립여단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면군 사령관의 직할부대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쟁 수행 과정에서 두 요새지에 큰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의 상설 요새는 동해안에 있는 나진, 영흥만, 부산 요새였다. 이는 일본 본토와 대륙 사이의 연계가 용이한 동해안 세 항구의 군사적 가치가 높아 요새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중일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일본은 여수와 남해안 다섯 곳에 임시요새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설치예정인 이들 임시요새 가운데 유일하게 사령부가 설치된 곳이 여수였다. 일본에 있어 부산과 여수 항구는 본토와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지점이자 진해 해군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여수는 남해안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었다. 그래서 두 지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한 수송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며, 1945년 들어 예상되는 미군의 해상공격 또는 상륙을 저지하겠다는大本영과 제17방면군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과 여수의 요새지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본격적

으로 건설된 곳이다. 가덕도 포진지의 경우도 비록 러일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동해 해전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건설한 곳이었지만, 이후 규모 등이 축소되어 오다 1940년대 들어 크게 강화되었다. 1945년 들어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건설된 군사시설은 주로 중포병대의 포진지였으며, 진지는 일본군이 안전한 엄폐와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시멘트로 만든 横穴式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이들 동굴을 만들 때 표면의 흙을 걷어 낸 다음 시설을 완료하고, 다시 흙을 덮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군사시설의 건설에는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었다. 특설근무대처럼 징병당한 노무병사들과 요새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동원되었다. 오키나와전투의 예를 보건데, 한반도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다면 동원된 조선인 병사와 민간인들은 총알받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네 차례 조사한 시설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없었다.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치해 두고 있다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용호동 시설지처럼 파괴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니 각 시설지가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아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국에는 해당 시설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대부분 없으며, 분단 현실에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시설지도 많다. 그렇다고 중앙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설지는 광복 후 좌우대립 및 6·25전쟁과도 연관이 있거나, 분단체제하의 군사용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산의 주한미군기지과 여수의 향일암 근처 한국군 초소가 후자에 해당된다면, 부산의 용호동 시설지나 여수의 수상비행장 시설지는 좌우대립의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일본군의 시설지만이 아닌 것이다.

이들 시설물은 식민지와 좌우갈등, 남북분단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한국근현대사,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공간인 것이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여 한국인과 인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미래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지방화가 곧 세계화'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주 말한다. 자기 지역의 역사, 곧 향토사·지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이다. 더구나 21세기 들어 한중일 사이에 역사갈등이 연례화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맞는 역사교육을 강화해야하는 시대인 것이다.

남서해안 일대에 남아 있는 시설물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문화로서의 역사교육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수업만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과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박물관적인 시설물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오래 기억되게 만드는 역사교육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해안 일대의 관광은 자연 이외에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없다. 때문에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를 준비하는 팀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본군 전적지 시설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평화벨트의 창설이라는 컨셉을 갖고 전쟁과 인권, 그리고 평화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일본군 시설지가 지금 어떻게 재창조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해답은 명확하다.

(원고투고일 : 2009. 1. 30, 심사수정일 : 2009. 2. 28,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아시아태평양전쟁, 本土決戰, 한반도에서 2차세계대전, 요새, 포병, 고사포대, 가덕도, 부산, 여수, 역사교육, 기억

<ABSTRACT>

The Asia Pacific War and the Military Positions built in the Southern Parts of Korea by the Japanese Forces

Sin, Ju-back

This paper addresses the rough picture of military activities of the Japanese Forces just befor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Korean Peninsular. In particular, the writ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military strategic points and facilities built in the southern parts of Korea, *Busan* and *Yeosu*, by Japanese Forces to perform their strategic plan in the Korean territory.

The key points in *Busan* and *Yeosu* were built in 1940s just after the War broke. Having roughl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to fight against Russian Baltic Naval Force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s (1904-1905), the *Gadeok-do* Island position, *Pojinji*, were later re-modeled and enlarged in 1940s. And most of the facilities of the *Pojinji* position were made for the decisive battle against the Allied Forces in 1945.

Though these positions were not divisions, they were under control of the Commander, 17th Division, which means the role and the benefits of these positions were not ignorable for the Japanese Forces. To keep *Busan* and *Yeosu*, critical channels connecting Japanese islands and the peninsular, under their control means they could secure the channel of transportation of necessary stuffs, or personnel, and it also showed their military strategy they would not allow any possible landing of the enemy in *Busan* or *Yeosu* port.

In building the facilities many Koreans were forced to provide labour power: Korean soldiers forcefully registered by Japanese Forces and civilian residents in neighborhood as well were forced to build the positions day and night. As the case of Okinawa Battles shows, if any battle broke in the Korean Peninsular then Korean people would have been sacrificed as a shield against the bullets for the Japanese Forces in front of them.

There is no any signpost of commemoration in these places. The history is just under way to be forgotten.

Keywords : The Asia Pacific War, Mainland Decisive Battle, the Second World War in Korean Peninsular, Fort, Artillery, Anti-aircraft Battery, *Gadeok-do*, *Busan*, *Yeosu*, History Education, Memory